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고린도전서 2:10-3:9

정윤돈 목사님

서론 : 강단메시지

(1) 세 명의 사학자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 이 세 사람의 주장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적용 방법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다.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가지 않고 전통으로 간다. 습관으로 간다. 그게 복음적인 본질을 벗어나게 한다. 본질적, 근본적인 복음을 바꾸는 것은 이단이 된다. 그러나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옛날에 부흥회 때는 남, 녀가 다 따로 앉았다. 부흥회 설교 주제가 파마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귀 파마라고 (웃음) 요즘 그런 설교 하겠는가. 미니스커트도 입고 오는 판인데. 옛날에 찬양하려고 기타하고 드림을 가지고 왔더니 장로님이, 왜 마귀 악기를 들고 오느냐는 것이다. 문학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쳐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뀐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안 지키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복음은 회미해진다. 엘리트들은 그런 것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진리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본질은 지키면서, 시대는 앞서가는 진도운동의 대열에 서기를 축원한다.

(2)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보자.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잔소리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나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용서해주는 것이다. 열왕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쓴 것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절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렇게 망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르다.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끝까지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다.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다.

(3)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① 과거에는 율법이었다. 사실 다 본질은 그리스도다. 똑같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였다. 밤에는 촛불이 요긴하지만, 태양이 떴을 때에는 촛불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촛불이다.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촛불 하나라도 필요했었다.

② 그러나 이제는 태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촛불 들고 다닐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다음 주 주일에 나누게 될 갈라디아서다. 그것이 복음, 실체 되신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말이다.

본론

오늘 교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먼저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남편이면 되겠는가?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자, 부모도 어떻게 보면 주인 아닌가? 유교사상 때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못 잘랐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 상담학에서는 자녀의 문제는 모두 부모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자녀는 부모의 리모콘이다.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내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논문으로 이미 다 확립된 교과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만큼 바뀌게 되어 있다. 물론 부모가 안 좋은데도 알아서 잘 성장하는 자녀도 있지만 아주 드물다. 대부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가문이 그래서 중요하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길이 있다.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응답받을 희망이 있다. 소중함을 알고 가야 한다. 어설프게 이해해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온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주인으로 삼는다.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경험, 내가 관찰하고 싶은 의견이 딱 떠오른다. 그릇이 콜라병뚜껑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각인,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의견, 내 주장을 내 세우는데, 전체를 생각하면서 맞춰 가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바탕을 만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 주장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 되도록 가야 한다. 강단메시지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한다. 진짜 목숨 걸어야 할 것을 발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이 다른 데 생긴다. 램프 키우고 전도하는 것에 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는 것에 한이 생겨서 24시 품고 있다. 그런 체질을 바꿔야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겠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자기 이권이다. 많은 장로님들과 내가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내 교회, 내 이익, 내 돈 이야기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돈이다. 그런 게 나는 너무 실망스럽다. 성숙되어야 한다.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 결국 보니까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 사는 길이였다 하고 나와야 한다. 그게 십자가 아닌가. 내 욕심,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우리가 소중한 복음을 가졌지 않나.

1. 첫째는 비그리스도인이다.

- (1)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 (2) 죄의 종 노릇 하는 상태로 대부분 살아간다.
- (3)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정도가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도가 없이 살아간다. 육신 중심이다.
- (4) 영도, 양심도 다 죽은 상태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돈 중심, 즐거움 중심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본질이 진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직장인, 사회인, 대기업 총수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 나라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 (5)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고 했다.

(6) 결국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영적 상태, 신분, 마음이 다 문제다. 이런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해야 한다. 캠프할 때 흑암이 꺾인다. 내게 빛이 있으니까.

2. 두 번째는 욕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되 아직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니고테모 같은 사람이 다 성실하고 착하고 잘 믿으려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영적인 것을 모른다. 나라, 민족이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였다.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다 잘 산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곳곳에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중국으로 뿔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된다. 영적인 유산이다. 영적인 것을 누리다가 욕신의 것도 되어지는 요삼1:2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란다.

(1)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욕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게 된다. 이런 어린 신자가 많다.

(2) 믿음의 중요성을 모른다. (히11:6) 정말 믿으셔야 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3천 제자를 세워야 한다. 문화를 정복해야 한다.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조수미도 불러서, 공연시키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한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나 혼자서 300명 제자를 세울 것이다. 얼마든지 바랄 수 있다. 바라는 것을 왜 못 하겠는가. 정말 전도는 현장에서 누리고, 가까운 생활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은 목사보다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지 않나.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3.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다. 불신자는 주로 자연인이라고 C.C.C에서 부른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다. 욕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교회 갔을 때나 집회 갔을 때만 살짝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가 다시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사단이 자꾸 심방을 온다. (웃음)

(1)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 사단이 열썬도 못 하는 것이다. 욕에 속한 사람은 영적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 수준인 것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80점으로, 90점으로, 100점으로 올라가야 한다.

(3) 예배가 왜 필요한가? 말씀,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린다. 영적 상태, 말씀 기억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한다.

결론

5월은 전도캠프의 달이다. 주제를 두 가지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성령인도를 따라 하는 것이지만, 집중해서 한데 모으자는 것이다.

(1) 명단이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런 것이 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자주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나. 어떤 분은 이름만 적었는데도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2) 그리고 현장이다. 학교, 직장, 지역, 가정이다.

왜 이 말을 하는가? 캠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전 교인이 빛의 캠프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다 이름을 적고,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기도제목도 물어보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자, 램네프, 사명자를 기쁘게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